

5월 구역모임

천국 소망의 확신, 부활의 확신

☞ 1. 환영 Welcome

- ◎ 인사와 교제
- ◎ 감사와 나눔

☞ 2. 찬양 Worship

- ◎ 무덤에 머물러 (찬160장)
- ◎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161장)
- ◎ 주님께 영광 (찬165장)
- ◎ 하나님의 독생자 (찬171장)

☞ 3. 말씀 Word

| 생각하며 읽기 |

- ①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 배워 봅시다.
- ②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1)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을 신앙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부활은 신앙 즉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 다시 말해 공자 같은 현자로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의 탁월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과 행동에 관심을 갖고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는 열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스승의 카리스마와 탁월한 능력에 매료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승은 이때까지 행했던 모든 능력과 카리스마가 마치 사기인 양 무력하게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을 따랐던 열두 명의 제자들 중 그를 배반한 제자 하나는 목매달아 죽었고, 나머지 열한 명은 뿔뿔이 흩어져 고기를 잡으러 혹은 농사를 지으러 원래 살던 곳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스승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만약 제자들이 스승에게 배운 식견과 사상으로 무장한 엘리트 지식인들이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의 힘은 얼마든지 죽음의 위협을 뛰어넘어 그들을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직사회학에서는 세대를 이어 조직의 정체성을 세워 가기 위해서는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직의 정체성이 담긴 사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은 사상 자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승이 죽자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도망간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제자들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죽은 스승을 목숨을 걸고 전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본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고개를 떨군 채 남은 인생을 체념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충격이 가해져서, 그들을 절망에서 이끌어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우는 불가항력적인 힘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의 앞 장은 절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제자들을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웠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스승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추적해 보면서 부활은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요,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신앙을 ‘맹목’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하고, 실제로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를 깨어 부수시고 실제로 역사 한복판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은 모든 성도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육체의 부활을 믿으라

부활의 때에는 우리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요, 육체도 함께 부활합니다. ‘몸은 땅에 묻혀 썩어 가는데 어떻게 몸도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우리의 몸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시간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시간의 영향을 받던 우리의 지식과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후5:1)

죽음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장막 집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죽음과 함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그분의 뒤를 이은 성도의 몸도 시간을 벗어난 세계에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과 육과 혼이 모두 부활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전에 장애를 가진 성도들 앞에서 이 진리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도 부활해 우리가 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게 서게 됩니다!” 저는 이 말에 그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의 부활만 믿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 있는 육체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며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운데, 죽은 후에도 지금과 똑같이 약점을 가진 채 부활하거나, 아니면 몸은 죽고 영만 부활한다고 생각해 한이 덜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들의 온전하지 못한 몸에서 연유한 고통의 응어리를 치유 받을 길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영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할뿐더러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에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천국 소망의 확신, 육체의 부활의 확신은 기독교 복음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3) 부활 신앙의 중요성(불교와 기독교의 비교)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 신앙 안에는 개인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과 다른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를 구분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 되게 하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석가모니가 득도(得道)를 한 후 그 도를 전하기 위해 천하를 두루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어스름하게 질 무렵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마을 어귀에서 슬피 우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찍 과부가 되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애지중지하며 키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그녀는 슬피 울며 부처님의 옷자락에 매달렸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가라. 그리고 각 집을 돌며 초상나지 않은 집의 보리 한 홉씩을 얻어 세 홉을 가져 오면 내가 죽은 너의 아들을 살려 주겠다” 여인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던 동네로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지고 어둠이 밀려올 때 여인이 석가모니 앞에 왔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각 집을 돌며 초상나지 않은 집을 찾아보았으나, 단 한 집도 초상을 치러 보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죽음이 저 혼자만 겪는 설움이요 고통이라 생각했는데, 죽음은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와서 살고, 이렇게 고통 받고 신음하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인연의 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고 운명인데 어떻게 저 혼자만 그것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연의 한 부분으로 매여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장벽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석가모니가 깨우쳐 준 것입니다.

불교의 영성은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와 좌절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 살

다가 병들어 죽는 운명이기에 죽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생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불교의 정신이 지난 3,000여 년 동안 동양을 이끌어 왔습니다. 동양은 그로 인해 초월하는 깊은 영성을 소유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로 인해 동양은 인간이 처한 모순된 현실을 바꾸고, 가족이 얽힌 운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고 하기 보다는 이전의 잘못된 세상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을 보면 석가모니가 여인을 만난 사건과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의 성문 가까이로 가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일찍이 홀로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은 과부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아픈 심정을 알고 있었기에 관을 메고 나오면서 함께 울고 아파했습니다. 주께서는 과부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처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애야! 너만 받는 고통이 아니란다. 우리는 다 이렇게 와서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눅7:14)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하고 말씀하시자 죽은 자가 일어나 관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 슬퍼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체념함으로 자기의 문제를 초극하게 한 것이 아니요, 여인의 고통의 근원을 실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죽음의 힘을 이겨 내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4) 천국 소망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처럼 천국 소망의 확신은 내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수는 적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삶을 보고 경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20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몇 십만도 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제국 전체를 근본부터 뒤집어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이 같은 폭발력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부활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지금 계시듯이, 그분의 제자인 성도들의 육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발견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온갖 박해를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원래 귀족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각된 사람들은 귀족의 신분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성도가 믿음을 지킨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이생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울의 영적 폭발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전15:19)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서 살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이라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목회자는 다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입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의 집단 사기극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5) 고난 없는 천국 소망의 확신을 경계하자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의 확신은 많이 타락된 모습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천국행 티켓을 따 놓은 것에서 더 나아가 마음에 평안도 얻고, 동시에 현실에서도 잘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진지하게 쓰시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가지 않아도 될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십니다.

세상에서의 한 주간도 살기 피곤하고 힘든데 주일에 교회는 왜 나오니까? 오전에 좀 더 자고 오후에 골프 치러 다니면 더 행복할지도 모르는데, 짜증나고 힘든 예배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내 집 섬기기도 바쁜 현대사회에 하늘 아버지의 집인 교회까지 섬기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생의 전부가 아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반드시 발견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잠깐의 고생도 기꺼이 극복하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주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절대 눈에 보이는 이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사후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 그 자체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학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피부로 접촉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신비의 세계가 과학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에 깊이 빠져 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천국을 기껏해야 신앙으로 받아들일 뿐, 실제 존재하는 세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오감으로 만져지지 않는 통찰과 영감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이 보여주는 현실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지켜 가야 하겠습니다.

✦ 삶의 적용을 위한 나눔 ✦

- (1) 당신은 예수께서 죽은 지 삼일만에 몸이 부활하여 사도들과 바울 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 (2) 부활신앙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전반 (예: 예배, 교회 안의 교제관계, 신앙의 태도)에 적용된다면, 지금의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한번 솔직히 나눠봅시다.

🕊 4. 중보기도 Work

- ◎ 가정과 개인을 위한 기도
- ◎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한 기도
- ◎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 합심기도 후 '주기도'로 구역모임을 마칩니다.